

#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ork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정진희\*, 원미순\*\*, 이수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울여자대학교 교양학부\*\*,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Jin-Hee Jeong(babo1586@naver.com)\*, Mi-Soon Won(mswon23@gmail.com)\*\*,  
Soo-Jin Lee(sjnarada@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서 5개 대학의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502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였으며 자료처리는 빈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과는 별다른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진로준비행동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의 세 하위변인 중 클라이언트 지지 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과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은 행동적인 측면인 진로준비행동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 진로결정수준 | 진로준비행동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tribute to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guidance for universities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by examining how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students a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ork self-efficacy and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respondents. For this study, the social work self-efficacy, the levels of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preparation-related behavior of 502 students of social welfare in five universities were measured. Th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collected data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levels of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preparation-related behavior were slightly lower than mid-point on 5 point scale respectively. Secondly, social work self-efficacy was not correlated to their career decision levels while social work self-efficacy positively affected to the career-related behavioral levels. In particular, the client support self-efficacy of the three sub-factors in social work efficacy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level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nsequently, social work self-efficacy of the participants intensively was correlated with their career preparation-related behavioral levels.

■ keyword : | University Student Majoring in Social Welfare | Social Work Self-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areer Decision Level |

## 1. 서론

한국사회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이 생겨나고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사가 전망 있는 직종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복지대학, 대학원, 사이버대학과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생겨나 사회복지교육의 대중화가 가속화되었다[1]. 이러한 사회복지 교육기관의 급격한 팽창은 사회복지사의 배출과 직결되며 최근 자격증 발급수가 대폭 증가하는 데 반해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가 큰 변동이 없음을 고려하면 이렇게 양산된 사회복지인력의 공급은 이미 현장의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고 추정된다[2][3]. 더욱이 통계청의 2007년 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산업분야 평균 근속기간이 8.6년인데 비해 사회복지분야 취업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2년으로 현저히 짧게 나타났다[4].

이렇듯 사회복지인력의 과다배출과 높은 이직률 등으로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의 진로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준비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은 전공교과목 이수 외에 별도의 진로준비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정규과정의 졸업학점만 이수하면 졸업과 동시에 국가자격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으로 마치 취업 자격준비를 다 한 것처럼 여겨 타학과 학생들과 비교하면 학점관리, 자격증 취득, 어학 공부 등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분석한 김태순과 황혜원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발달수준이 평균 2.45점으로 4점 척도의 보통수준(2.5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양질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질 관리의 방안으로 사회복지교육인증제도<sup>1)</sup>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교육역량강화사업<sup>2)</sup>,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사업 등을 통해 21

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갖추어 진로준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의 노력 및 국가의 지원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대학생 스스로 진로를 준비하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노동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인프라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발맞추려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취업 현장에서 남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이야말로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것이다[6].

이에 따라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7]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특히 허정철의 연구[8][9]에서는 진로탐색 집단 상담과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중수의 연구[10]도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슈퍼비전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연구의 초점을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의 연구들은 개인의 흥미, 성격, 적성, 가치관과 진로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등 인지적 측면[11-13]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최근 들어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14-16]이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18][19],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대부분 전공구분 없이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6][15][20][21], 학과별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적인 측면인 진로결정수준과 행동적인 측면인 진로준비행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1)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지교육 인증제도는 사회복지교육을 위한 적절한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필요한 운영요건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2) 교육역량강화사업이란 대학의 교육역량 및 성과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사전에 구성된 공식을 적용하여 교육 역량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전문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을 탐색해 봄으로써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자신이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며,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22]. 특히 원조 전문직에서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효능감이 과업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목표성취 등 미래의 긍정적 행동과 연관되기 때문이다[22].

이러한 Bandura의 이론을 바탕으로 Hackett와 Betz [23]는 진로발달이론에 자기효능감 이론을 접목시켜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특별히 '진로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으로 개념화하였다[24]. 자기효능감이 인간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할 때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 진로결정 그리고 선택한 학문적 진로에서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로 발달모델에 자기효능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처럼 자기효능감과 진로자기효능감의 정의를 사회복지영역으로 확장해 본다면, 사회복지영역의 자기효능감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속한 체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Holden 등[22]은 사회복지전문직의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회사업 교과과정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는 측정도구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에 있어 사회복지전문

직의 고유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은 사회복지 교과과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과 더불어 실천현장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다[24].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영역에서 자기효능감은 사회복지전문직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개입의 성과와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념과 확신을 내포하고 있으며[24], 따라서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이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이란 자신의 전공이나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말한다[18]. 진로결정수준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진로결정이라는 개념은 Wanberg와 Muchinsky의 연구[25]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26]. 여기서 진로결정이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서 진로설계와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결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진로미결정은 진로결정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직업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18]. 즉, 진로와 관련된 결정에 관해서는 진로결정과 미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진로미결정이 단순히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개념이기보다는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보이는 결단성 부족이라는 개인의 특성까지도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을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26]하는 것으로 보되, 진로결정 정도와 진로결정의 특성, 그리고 미결정의 원인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개인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겪는 다

양한 어려움을 통해 진로결정에 이르고자 하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 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인지나 태도, 정서 차원이 아닌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실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로준비행동에 관해 연구한 김봉환[26]에 따르면 진로준비행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자신과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수집활동이다. 둘째는 자기가 목표한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기자재, 또는 교재 등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셋째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진로와 관련된 전문서적 등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제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 4. 사회인지 진로이론

최근 진로상담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이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이다. 이 이론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에 바탕을 두고 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과 여성 진로발달에 자기효능감 개념을 적용한 Hackett와 Betz[23]의 연구를 통해 발전하였다. 즉 진로선택에 있어서 진로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 같은 인지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맥락변인을 포함하는 진로발달의 내용뿐 아니라 진로발달의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개인의 학문적·직업적 흥미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흥미발달모형, 교육적·직업적 선택과정을 설명하는 선택모형, 그리고 학업과 직업영역에서의 성과를 설명하는 수행모형이다. 첫 번째, 흥미발달 모형은 흥미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즉, 개인이 자신이 잘할 수 있

다고 믿고 해당과업을 성취하며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으며 강화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길 때 그와 관련된 진로에 대해 강한 흥미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모형은 진로흥미발달이 진로와 관련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흥미가 단순히 자기효능감이나 결과기대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근원으로서 학습경험이 개인적 배경과 환경적 배경에 의해 제한받으며 진로 관련 목표의 선택이나 실행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선택모형은 흥미발달과 함께 기본적으로 개인의 진로선택에 관련된 목표의 선택, 활동의 선택, 실행영역 및 성취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수행모형은 개인의 성취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능력,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그리고 목표라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수행모형에서 개인의 학업적·직업적 성과는 능력,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설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27].

이와 같이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개인의 진로선택과 행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적인 측면인 진로결정수준과 행동적인 측면인 진로준비행동을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선택모형에 적용하여 진로결정수준은 목표의 선택으로, 진로준비행동은 실행영역 및 성취로 보고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이다. 본 연구의 표집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G 광역시와 J 도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 모집단<sup>3)</sup>으로 설정하고,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원교 총 81개 대학 중에서 G광역시와 J도에 소

3)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 중 사회복지학과(아동복지, 행정복지, 생활환경복지 포함)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15개 교이며, 2011년 기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수는 4,106명이다[28]

제하고 있는 5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편의표집방식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G광역시와 J도에 있는 5개의 4년제 대학에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응답한 설문지 총 502부 중 사회복지학 비전공인 경우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한 461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표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50	32.5
	여	311	67.5
학년	1학년	112	24.3
	2학년	111	24.1
	3학년	114	24.7
	4학년	124	26.9
연령	19세 이하	119	25.8
	20-21세	163	35.4
	22-23세	107	23.2
	24세 이상	72	15.6
사회복지학 전공여부	전공	412	89.4
	복수전공	32	6.9
	부전공	17	3.7
계	461	100	

## 2. 측정도구

### 2.1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척도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학 전공 4학년을 대상으로 활용된 것[24]을 사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 앞서 예비조사를 하여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내용을 보완하였다.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 결과 ‘클라이언트 지지 효능감’ 7문항, ‘치료기법 효능감’ 6문항, ‘개입기술 효능감’ 5문항으로 모두 3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11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있다. 신뢰도는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클라이언트지지 .93, 치료기법 .89, 개입기술 .89로 나타났다.

### 2.2 진로결정수준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sipow 등[29]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를 고향재[30]가 번역한 것 중 자유응답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 2문항, 진로결정에 대한 미결정성 16문항)만을 활용한 리커트 4점 척도이다. 본 번역본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계수 .86이었으며, CDS와 의사결정유형 검사 간의 상관계수를 근거로 본 척도의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 2.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26]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6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자신의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5문항,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7문항,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준비행동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84, 반분신뢰도 .74, 검사-재검사 신뢰도 .82이다.

##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변인들의 전반적인 응답결과를 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변인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문제에 따라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주요측정 변인들의 전반적인 응답결과

#### 1.1 독립변인의 응답결과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와 같다. 11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의 세 하위변인의 평균점수는 모두 보통(5.0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클라이언트 지지 효능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표 2.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N=461명)

독립변인		평균값	표준편차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클라이언트 지지	6.27	1.80
	치료기법	5.38	1.69
	개입기술	5.30	1.71
	계	5.70	1.54

#### 1.2 종속변인의 응답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응답결과는 김태순과 황혜원의 연구결과[5]와 동일하게 보통수준에 못미치는 결과가 다음 [표 3]과 같이 나왔다.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진로결정수준의 전체 평균 점수는 2.49점(표준편차 .44)으로 나타나 보통의 수준을 2.5점으로 기준하여 보았을 때 보통보다 아주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진로준비행동의 전체 평균 점수는 2.29점(표준편차 .51)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준비행동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N=461명)

종속변인		평균값	표준편차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	2.58	.67
	진로결정에 대한 미결정성	2.48	.46
	계	2.49	.44
진로준비 행동	정보수집활동	2.36	.58
	필요한 도구를 갖는 활동	2.27	.57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노력	2.24	.66
	계	2.29	.51

### 2.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 2.1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r=0.74$ ,  $p>.05$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개입기술 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과 비교적 약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입기술 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4.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클라이언트 지지 효능감	.047
치료기법 효능감	.057
개입기술 효능감	.105*
전 체	0.74

\* $p<0.05$ , \*\* $p<0.01$ , \*\*\* $p<0.001$

#### 2.2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왔다.

[표 5]에 의하면 클라이언트 지지 효능감, 치료기법 효능감, 개입기술 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표 5.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예언변인	b	$\beta$	t
클라이언트 지지 효능감	-.006	-.023	-.351
치료기법 효능감	-.006	-.025	-.339
개입기술 효능감	.035	.138	1.995
상수	2.376		
$R^2$ (수정된 $R^2$ )	.012(.005)		
F	1.841		

\* $p<0.05$ , \*\* $p<0.01$ , \*\*\* $p<0.001$

3.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3.1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관계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r=.207, p<0.01$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치료기법 효능감( $r=.269, p<0.01$ ), 개입기술 효능감( $r=.232, p<0.01$ )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클라이언트 지지 효능감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치료기법 효능감과 개입기술 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사회복지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클라이언트 지지 효능감	-.081
치료기법 효능감	.269**
개입기술 효능감	.232**
전 체	.207**

\* $p<0.05$ , \*\* $p<0.01$ , \*\*\* $p<0.001$

3.2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을 예언변인으로 하여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왔다.

[표 7]에 의하면 클라이언트 지지 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 지지 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적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치료기법 효능감과 개입기술 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클라이언트 지지 효능감, 치료기법 효능감, 개입기술 효능감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0.4%로 나타났다.

표 7.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b	$\beta$	t
클라이언트 지지 효능감	-.069	-.241	-3.778***
치료기법 효능감	.099	.325	4.668***
개입기술 효능감	.046	.154	2.343*
상수	1.943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	.104(.098)		
F	17.667***		

\* $p<0.05$ , \*\* $p<0.01$ , \*\*\* $p<0.001$

V. 결론 및 논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에 있어서 대학생들은 개인과 일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타 학과 학생에 비해 진로발달수준이 낮은 결과 [5]를 보이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전공 특수성을 살려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은 4점 만점의 척도에서 각각 평균 2.49와 평균 2.29로 보통수준(2.5점)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이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결정하며, 선택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상담 및 진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하위변인인 개입기술 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치료기법 효능감 및 개입기술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준비행동에 사회복지 자기효능

감의 세 하위변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클라이언트 지지 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기술 중에서 클라이언트를 지지하는 기술이 가장 쉽고, 보다 덜 전문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오히려 진로준비행동을 덜 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를 지지하는 기술은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학습되기보다는 타고난 기질에 의한 능력이 크므로, 클라이언트 지지 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이 클라이언트 지지 기술을 어렵게 느껴 진로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다. 한편 두 변 수 사이에 제 3의 매개변수 또는 조절변수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두 변수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지적인 측면인 진로결정수준 보다는 행동적인 측면인 진로준비행동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이 행동적인 측면과 더욱 밀접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이 부족한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에게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향상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및 상담 전략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이나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일괄적인 상담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 프로그램, 봉사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지적 측면인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전공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변인을 모색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홍선미, “한국사회복지교육인증제의 도입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2권, pp.123-145, 2010.
- [2] 이기영, 최명민, “사회복지전문인력 개발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교육, 제2권, 제1호, pp.1-52, 2006.
- [3] 김승용, 허선, “사회복지 전공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제10권, pp.23-51, 2009.
- [4] 통계청, 2007년 인력실태조사결과, 통계청, 2008.
- [5] 김태순, 황혜원,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사회복지전공학생들의 진로발달 및 전문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 제9권, pp.97-126, 2009.
- [6] 이예진, 이기학, “진로동기수준에 따른 군집 유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pp.267-287, 2010.
- [7] 박주현, 김용태,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진로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3호, pp.59-80, 2009.
- [8] 허정철,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27-236, 2012.
- [9] 허정철, “자기성장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486-495, 2011.
- [10] 강중수, “사회복지현장실습 슈퍼비전 특성이 전공생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212-222, 2012.
- [11] D. G. Betsworth and N. A. Fouad, “Vocational interests: a look at the past 70years and a glance at the futur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6, pp.23-47, 1997.
- [12] D. Brown, “The role of work and cultural values in occupational choice, satisfaction, and



- success," J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80, pp.48-56, 2002.
- [13] J. E. A. Russell, "Vocational Psychology: an analysis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J of Vocational Behavior, Vol.59, pp.226-234, 2001.
- [14] 어윤경, "진로성숙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실현의 관계: 의사결정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24권, 제4호, pp.1029-1046, 2010.
- [15] 이주희,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6권, 제1호, pp.103-115, 2004.
- [16] R. D. Duffy and B. J. Dik, "Beyond the self: External influences in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58, pp.29-43, 2009.
- [17] E. A. Norman, A. B. William, L. Maria, D. B. Lee and K. Emily, "Career decisions from the decider's perspectiv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58, pp.336-351, 2010.
- [18] 이성식,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 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19] 강제태, 양재석, "고등학생들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미결정 유형간의 관계", 한국직업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pp.51-65, 2001.
- [20] 김은주, *한국대학생 진로준비유형화 검사의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21] 박정희, 김홍석,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1호, pp.125-144, 2009.
- [22] G. Holden, T. Meenaghan, J. Anastas, and G. Metre, "Outcomes of social work education: The case for social work self-efficacy," J of Social Work Education, Vol.38, No.1, pp.115-133, 2002.
- [23] G. Hackett and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pp.326-339, 1981.
- [24] 최소연, "사회복지전공학생의 사회복지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제12권, pp.73-96, 2010.
- [25] C. R. Wanberg and P. M. Muchinsky,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 of Counseling Psychology, Vol.39, No.1, pp.71-80, 1992.
- [26] 김봉환, *대학생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27] 양난미, *한국 대학생의 사회인지 진로선택 모형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28] <http://www.academyinfo.go.kr/>
- [29] S. H. Osipow, C. G. Carmey and A. Barak,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 of Vocational Behavior, Vol.9, pp.233-243, 1976.
- [30] 고향자,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저 자 소 개

정진희(Jin-Hee Jeong)

정희원



- 2007년 2월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2년 8월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 자원봉사, 사회복지교육

원 미 순(Mi-Soon Won)

정회원



- 2003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5년 3월 ~ 2011년 8월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서울여자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자원봉사, 평화교육, 사회복지교육

이 수 진(Soo-Jin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13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2011년 9월 ~ 현재 :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전담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교육, 평생교육